

勞 動 經 濟 論 集
第42卷 第4號, 2019.12. pp.1~29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의*

이 철 희** · 김 규 연***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저출산, 고령화, 노동인력감소, 여성경제활동

논문 접수일: 2019년 10월 9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2월 7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9일

* 이 논문의 일부(III-1절 미국의 사례를 이용한 분석)는 필자 중 한 사람의 보고서(이철희 2018)에 제시된 방법에 최근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새롭게 분석을 수행하고 전면적으로 개고한 결과를 밝혀둔다. 유익한 조언을 베풀어주신 두 분 익명의 심사위원께 사의를 표한다. 이철희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연구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김규연의 연구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플러스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으로 지원된 연구이다(관리번호 21B20130000013).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ullee@snu.ac.kr)

*** (제2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ckykim@snu.ac.kr)

I. 서론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60~70만 수준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0년대 초에 40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이후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명대, 2018년 32만 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반세기 전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 2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새로운 세대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을 확인해 준다.

미래의 전망도 밝지 않다.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출산율이 향후 3~4년 동안 감소한 후 반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2021년(저위의 경우 2022년)까지 급감했다가 반등하여 2028년까지 증가하고, 이후부터 주로 여성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021년 약 293,000명에서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하여 2028년에는 다시 36만 명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래의 추세에 따라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감소하고 가까운 장래에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출산아 수는 통계청의 추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철희, 2019a).¹⁾

널리 우려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인구변화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의 규모가 감소하고 그 연령구조가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18년 3,765만 명이었던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2065년까지 현재의 49.2% 수준인 1,85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고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가 실현될 경우 현재 약 2,835만 명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861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65년까지 현재의 약 62.6% 수준인 1,77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산율이 당분간 더 감소하고 반등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065년의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55%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이철희·권정현·김태훈,

1) 예컨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추세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연령별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이 감소할 경우 출생아 수는 2021년에는 30만 이하, 2033년에는 20만 이하로 떨어지고 2040년까지 16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철희, 2019a).

2019).

우리나라의 경우 점진적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전반적인 노동인력규모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노동인력의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7년경 이후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인력규모는 6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크게 감소할 것이고, 2015년 이후 출생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되면 또다시 노동시장 신규진입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통계청 중위추계를 적용하고 2018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약 26%에서 2050년경 약 1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철희, 2019b). 현재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장기적인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나이든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인 증가가 아니라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장차 예상되는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다수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대응방안은 점차 상대적 규모가 커지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은퇴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1985년 이후 은퇴유인을 낮추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1995년부터는 정년 이후까지 일하는 60~64세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점차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의 5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이러한 제도적 개혁 때문이었음을 보인 바 있다(Oshio et al., 2018). 우리나라도 몇 년 전 법적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였고, 추가적인 정년연장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 고용확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 특성과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특히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인구변화에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남성이나 장년인구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향후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또한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불균형의 중요한 부분은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으로 볼 때 30대 후반과 40대 여성은 35세 미만 청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유형의 노동인

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0대와 40대 여성노동공급의 증가는 청년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노동공급의 확대는 수량적인 측면에서 인구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장기적인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까? 여성고용을 늘리려는 노력은 고령인구의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비해 효과적일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근래에 제시된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최근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장래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추정한 바 있다(이철희·이지은, 2017; 이철희, 2019a).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변화하면서 인구변동이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면 장래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얻는데 유용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노동인구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수량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은 여성 노동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와 종합적인 편익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장래 우리나라 25~54세 여성인구의 5세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추정한다. 둘째, 이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치에 통계청의 인구변화 전망을 적용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의해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장기적인 노동인력의 감소가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효과를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효과와 비교한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연구는 미래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한국이 과거의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을 그대로 따른다고 믿을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한국의 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두 국가의 경험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노동인력 규모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결과는 미래의 방향성을 내다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점(benchmark)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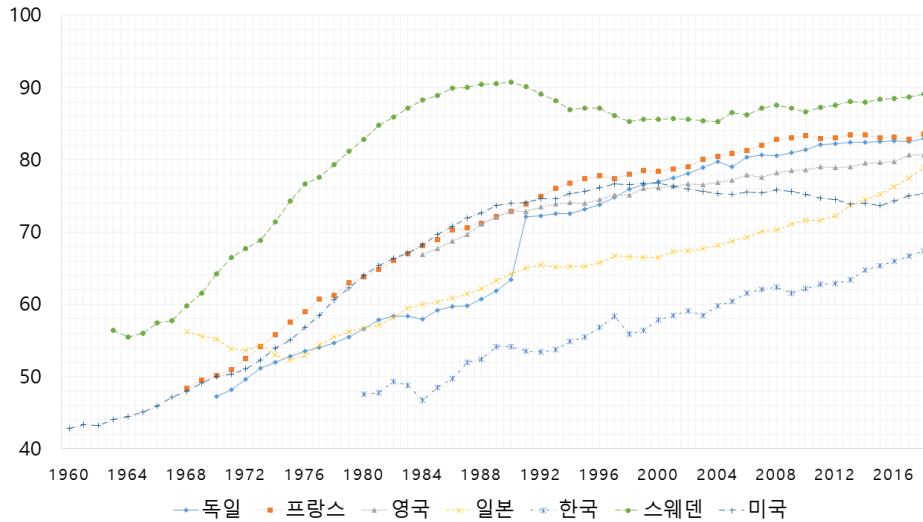
1. 기본적인 접근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에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와 시기를 선택한 다음, 그 국가의 해당기간동안의 역사적 경험(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정도와 변화속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국가 및 시기의 선정과 구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방법은 아래의 절에 소개하였다. 이렇게 장래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전망하는 장래의 연령별 여성인구에 적용하여 아래의 식 (1)과 같이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한다. 여기에서 N_{at}^F 는 통계청이 전망한 장래 특정연도의 연령별 여성인구, \widetilde{P}_{at}^F 는 각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추정한 장래 특정 연도의 각 연령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가상적인 추정치, \widetilde{EAP}_t^{PF} 는 인구변화와 경제활동 변화에 의해 결정될 장래 특정 연도에서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widetilde{EAP}_t^{PF} = \sum_{a=25}^{54} \widetilde{P}_{at}^F N_{at}^F \quad (1)$$

[그림 1]에 나타난 196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장기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90% 수준에 도달하였고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1990년 이후의 독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무렵까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76~78%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미국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 내지 감소한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의 동일 연령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8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OECD 7개국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일본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대 중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76%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8%에서 계속 높아져 왔으나 현재 66%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장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특정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한 시나리오가 전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적어도 기준점(benchmark)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이하의 분석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정책적 요인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경로로 변화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인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이 확립된 반면 아동을 위한 복지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은 취약한 편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되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공식·비공식적인 불리함은 여전히 큰 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두 국가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절(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

협)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두 국가의 기준시점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시장의 특성,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 사회정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서유럽이나 북구의 국가들보다는 이 두 국가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따라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른 경로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예컨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부정책이 미국보다는 북구나 캐나다와 유사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적어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여성 경제활동의 역사적 변화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기 초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940년 이후 특히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1920년대까지의 여성노동력참가율 변화에 있어서는 중등교육확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 출산율의 감소,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공급 측면 요인이 변화가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Goldin, 1990). 반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여성노동력참가율 변화에 있어서는 여성노동의 공급 증가와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증가 모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의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일자리 질 향상과 사회규범의 변화에 의해 여성노동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사무직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1940년대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성의 시장노동이 사회적으로 (특히 남편들에게) 수용되면서 여성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소득효과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남성(가구) 소득 증가가 여성노동공급의 증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감소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여성노동력참가율 변화과정에서는 수요측면의 변화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화이트칼라 직종으로의 전환, 파트타임 일자리의 증가,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감소 등으로 인해 여성노동공급의 대체효과가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감소하였다.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 동안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수요의 증가는 탄력적인 노

동공급곡선에 힘입어 여성 노동시장참가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공급 측면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 감소와 이혼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혼율은 이 기간 동안 두 배 증가했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능력/독립성을 유지할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35~44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1950년 25%에서 1970년 46%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보다 근본적인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는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Claudia Goldin에 따르면 이 시기 동안 소위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이 완성되었다(Goldin 2006). 여성 경제활동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커리어 추구에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다. 기혼여성은 여전히 이차적인 소득원으로 남아 있었고, 여성의 인적자본투자는 대부분 일자리 밖의 공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일을 생애를 통한 커리어로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나서 1960년대 중반에 10대를 보낸 출생코호트부터 이러한 경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래의 근로생애를 더 정확하게 예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게 되었다. 즉 노동시장 커리어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학진학에 필요한 과목(수학과 읽기)을 더 열심히 수강하였다. 실제로 1940년대 출생코호트를 기점으로 대학교육의 남녀 격차가 줄어들었고 1960년 이후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에 있어서의 남녀 격차도 크게 감소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경력에 대한 보수(return to experience)가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성들(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에서 발견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예컨대 미국 대학입학생 설문조사(Survey of American Freshmen) 결과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이 1970년대부터 커리어 상의 성공과 동료들의 평가를 만족도의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노동공급의 소득탄력성과 임금탄력성이 크게 낮아졌다(Blau & Kahn, 2007).

이렇게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었던 요인은 새로운 출생코호트의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몇 가지 제도적, 기술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제정되면서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출신국가 등에 따른 고용, 승진 및 기타 고용조건의 차별

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균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설립되어 위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972년에는 균등기회법(Equal Opportunity Act)이 통과되어 상기 법안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1960~1976년 기간 동안 Enovid라는 경구피임약을 21세 이하 인구에게 부모 허락 없이 판매하는 것이 각 주별로 허용되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이른 연령에 출산할 확률이 낮아지고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아졌다(Bailey, 2006). 1960년대 후반부터 배우자 중 한쪽의 신청만으로 이혼이 가능한 주가 확대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이혼법의 변화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Stevenson, 2008).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부터 느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에는 정체 내지 감소하였다. 그 결과 근래에는 북구나 캐나다와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기록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특히 금융위기 이후) 특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 및 완만한 감소세가 관찰된다. 1940년대 생 여성부터 시작된 세대 간 변화(generational shifts)가 최근 젊은 세대부터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Krueger, 2017). 1990년 이후 여성 노동공급곡선의 이동이 둔화된 것은 여성 경제활동 정체 내지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lau & Kahn, 2007).

근래의 연구들은 1990년대 말 이후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출산휴가나 노동시간 선택과 같은 일·가정 균형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확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Blau and Kahn(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한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적 감소의 29%는 가족정책의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결혼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에 의해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인구비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U.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2015).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한국은 20~30년 전의 미국과 다르며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노동시장 여건, 사회적인 조건, 여성노동과 관련된 문화적인 규범 등에 있어서 현재의 한국은 미국 여성노동의 “조용한 혁명”이 완결된 것으로 평가되는 1980년~2000년 기간 초반의 미국과 어느 정도 비견될 수 있는 면이 있다. 현재 한국의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초 미국 여성 동일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의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여성들은 미국의 “조용한 혁명”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1940년대 말 이후 출생 여성들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들이 있다. Lee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전공 선택에 있어서의 성별분리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선진국과 유사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1990년대 말 이후 대학진학자부터는 부모의 성역할 규범이 더 이상 자녀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교육성과와 시험으로 결정되는 노동시장성과(예컨대 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의 상대적인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혼인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이혼율은 급격히 높아진 것도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의 경험과 유사하다(이철희, 2016; 이철희, 2018).

3.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 변화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M-자 모양의 연령-경제활동참가율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은 여성 노동공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젊은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ymo and Lim(2011)의 연구결과는 대졸 여성이 고졸 이하의 여성에 비해 현재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1986년 남녀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EEOL)의 제정이다. Abe(2011)의 연구는 동 법 시행 이후 40세 이하 대졸 미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년제 대학에 가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실시한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에는 이후 보육비 지원 및 돌봄 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숫자는 23,609개에서 24,043개로 증가하였고, 어린이 레크레이션 시설 또한 4,345개에서 4,617개로 증가하였다(Kang, 2017).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경력단절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일련의 연구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여성경제활동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Nakamura and Ueda(1999)의 연구는 어머니와의 동거 여부와 함께 1세 미만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의 공급정도가 여성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탁아소의 공급비율이 10% 및 15%로 높아지는 경우 여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각각 9.6%, 1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 지원의 효과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Yamaguchi, Asai & Kambayashi, 2018). Nishitateno and Shikata(2017)의 연구결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의 약 5~11%가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Unayama(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이 83.6%였으나,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 비율은 약 62%로 감소하였다.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 반면 여성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출산 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8.1%, 2004년, 29.2%, 2010년 40.5%로 꾸준히 높아졌다(Kang, 2017).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 특히 대졸 여성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성고용에 있어서 이중경로 혹은 다중경로 고용(dual-track or multi-track employment)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다(Cannings & Lazonick, 1994; Edwards, 1994).²⁾ Bae(2014)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일본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가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 때 즈음 파트타임으로 재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심지어 노동조합)에서의 남성 가족 부양자 모형이 유지되면서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 격차는 연령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Nakata & Takehiro, 2002).

일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여전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또는 비상용직에서 일을 하는 비중이 높고, 정규직이어도 주변 노동(peripheral employment)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있고 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기혼여성의 상당수는 경력단절을 경험할 때 비정규직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일

2) 이중경로 고용시스템(two-track employment system)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는 부문과 관리직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두 부문 모두 고용에 있어 남녀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보통 전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는 반면, 남자들은 후자의 분야에서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경향을 띤다.

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질병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기혼여성의 경우 계속 비경제활동인구로 남는 경향을 보인다(Okamura & Islam, 2011). Raymo and L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졸 여성이 고졸 이하의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을 겪은 후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험을 따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전통적으로 유사한 M자 모양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궤적을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이를 나타냈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대와 40대 후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부진하여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상당부분 일본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일찍 인지하고 한국보다 앞서서 여성경력단절을 극복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obutane & Hwang, 2014; Kang, 2017).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보육지원정책의 내용과 양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과거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4.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25~54세 여성인구의 각 5세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9년 이후 2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추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미국 혹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각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고치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래의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 사회적·문화적 여건, 정책적인 여건이 미국이나 일본이 경험한 여성 노동력참가율 최고치에 도달할 만큼은 변화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어렵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예컨대 이 방법은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추가적인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족정책 및 사회정책이 20~30년 후에도 북구나 캐나다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현재 한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경험한 것과 같은 속도로 역사상 최고치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미국의 참가율과 같고, 미국의 참가율이

1997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면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1997년 사이 미국 연평균 참가율 변화속도에 따라 17년 후에 미국의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가정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적어도 25년 후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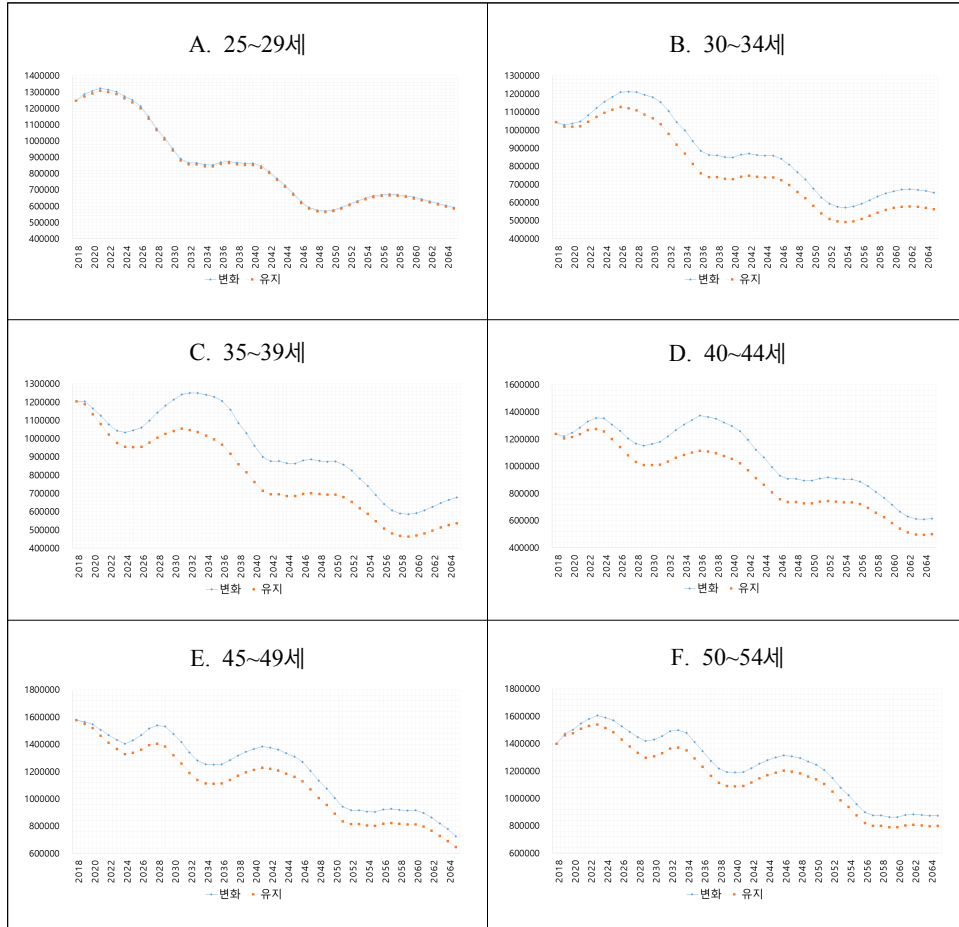
이상의 가정에 기초하여 25세부터 54세까지 각 5세별 연령집단에 대해 2065년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다. 예컨대, 30~34세에 대해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적용한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졌으며 최근(2018년)에는 65.2%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국의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75.9%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미국의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한국의 참가율과 가장 유사했던 때는 1981년(미국의 경우 65.9%)이었다. 위에서 설명한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한국의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매년 0.59% 포인트 증가하여 18년 후인 2036년에 미국의 역사상 최고치인 75.9%에 도달한 후 변화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추정도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일본의 경우 근래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치를 가장 최근(2018년)의 참가율로 가정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례를 이용하여 각 연령에 대해 설정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시나리오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Ⅲ.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장래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추정결과

[그림 2]는 25~54세 각 5세별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18년 이후 변화하지 않는 경우의 경제활동인구(유지)와 앞서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얻은 가상적인 경제활동인구(변화)의 장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인 결과는 미국의 역사적인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현재의

[그림 2]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용한 각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유지 시 결과 비교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장래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경우 특히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서도 상당한 경제활동인구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는 경제활동참가율

이 불변인 경우와 변화하는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인 변동의 패턴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기에 따른 출생코호트 규모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25~29세에 대한 결과(그림 2-A)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10년 동안 빠르게 감소한 후 2032년부터 정체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2040년 이후 9년 동안 감소하다가 2049년경부터 다시 증가하고 2057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2021년 이후 20대 후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0년 중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연간 출생아 수가 약 70만 명에서 40만 명대로 급감했던 변화를 반영한다. 그리고 204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아 수는 약 485,000명에서 약 327,00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23년까지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49년부터 이 연령대 경제활동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2023년 이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연령층에서 발견되는 양상은 이상에서 설명한 시간적인 변동이 5년씩의 시차를 두고 이동한 결과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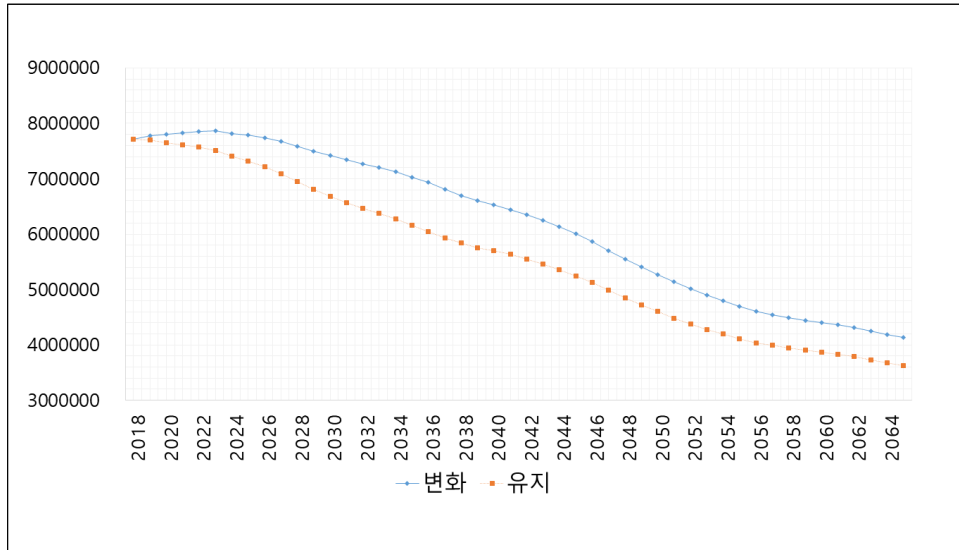
두 번째로, 각 연령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의 경제활동인구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의 경제활동인구 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 미국 경제활동참가율과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연령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20대 후반의 경우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미국의 역사적 정점에 근접해 있다. 이 때문에 이 연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내에 한국의 참가율이 미국의 참가율의 역사상 최고치에 수렴한다는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부표 1). 이러한 시나리오 때문에 2019년까지 “변화” 추정치가 “유지” 추정치에 비해 약간 높아진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30대와 40대 초반의 경우 한국 여성의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의 역사적 최고치에 비해 훨씬 낮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향후 18년(30~34세와 40~44세) 내지 19년(35~39세)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참가율이 미국 참가율의 역사상 최고치에 수렴하는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부표 1). 이로 말미암아 “변화” 추정치와 “유지” 추정치의 격차는 2036년~2037년까지 비교적 크게 벌어진 후 이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연령	2042년			2065년		
	유지	변화	증가 (퍼센트)	유지	변화	증가 (퍼센트)
25-29세	803,000	813,000	10,000 (1.2%)	585,000	592,000	7,000 (1.2%)
30-34세	748,000	870,000	122,000 (16.3%)	563,000	655,000	92,000 (16.3%)
35-39세	695,000	877,000	182,000 (26.2%)	536,000	677,000	141,000 (26.3%)
40-44세	970,000	1,195,000	225,000 (23.2%)	499,000	614,000	115,000 (23.0%)
45-49세	1,220,000	1,375,000	155,000 (12.7%)	645,000	727,000	82,000 (12.7%)
50-54세	1,116,000	1,220,000	104,000 (9.3%)	799,000	874,000	75,000 (9.4%)
전체(25-54세)	5,552,000	6,349,000	797,000 (14.4%)	3,626,000	4,138,000	512,000 (14.1%)

주: 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Statistics 등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추정방법은
 본문 참조

[그림 3]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 전망: 시나리오 미반영 및 반영 결과 비교



<표 1>은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과 2065년까지 얼마나 증가할지를 연령별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3]은 식 (1)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와 미국의 경우처럼 변화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2042년 이전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의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2042년과 2065년 추정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각 연령 여성인구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증가규모는 연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42년의 연령별 여성인구는 2065년보다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변화규모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1>의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35~39세의 경우 2042년을 기준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약 26%(약 182,000명)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20대 후반의 경우, 여기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해도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약 1%(약 10,000명)가 더 증가할 뿐이다.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3%(약 22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30대 후반보다 약간 낮지만 인구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가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효과는 30~34세의 경우 약 16%(약 122,000명) 증가, 45~49세의 경우 약 13%(약 155,000명) 증가, 50대 초반의 경우 약 9%(약 104,000명) 등으로 추정되었다. 25~54세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042년까지 약 14%(약 797,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추정결과

[그림 4]는 25~54세 각 5세별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18년 이후 변화하지 않는 경우의 경제활동인구(유지)와 앞서 일본의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추정한 가상의 경제활동인구(변화)의 장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처럼 일본의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래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상당정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연령별 결과는 미국의 사례를 적용해서 얻은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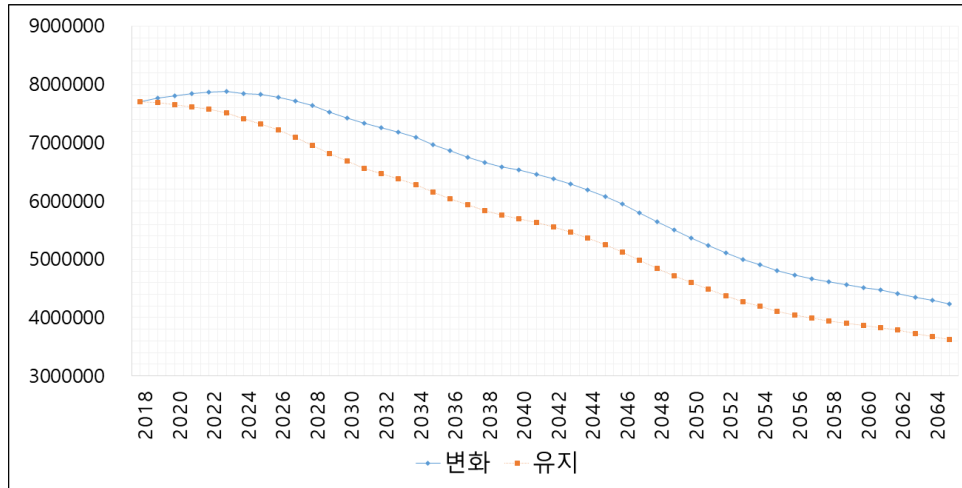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이 불변인 경우와 변화하는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인 변동의 패턴은 미국의 사례를 적용해서 얻은 결과(III-1절 참조)와 매우 유사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변화는 주로 시기에 따른 출생코호트 규모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험에 기초한 결과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의 경제활동인구와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의 경제활동인구 간 격차의 연령별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 비해 일본의 역사적 정점에 수렴하는 기간이 연령별로 더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수렴 기간이 11년(50대 초반)에서 19년(30대 후반)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10년(20대 후반과 30대 초반)부터 38년(40대 초반)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5세~34세 여성의 경우 “유지”시 경제활동인구와 “변화” 시 경제활동인구의 격차가 향후 10년 동안 벌어진 후 이후 유지되는 데 반해 40대 여성의 경우 이 격차가 오랜 기간 동안 점차 확대되는 패턴을 보인다.

〈표 2〉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연령	2042년			2065년		
	유지	변화	증가 (퍼센트)	유지	변화	증가 (퍼센트)
25-29세	803,000	881,000	78,000 (9.7%)	585,000	642,000	57,000 (9.7%)
30-34세	748,000	881,000	133,000 (17.8%)	563,000	663,000	100,000 (17.8%)
35-39세	695,000	856,000	161,000 (23.2%)	536,000	661,000	125,000 (23.3%)
40-44세	970,000	1,119,000	149,000 (15.4%)	499,000	620,000	121,000 (24.2%)
45-49세	1,220,000	1,355,000	135,000 (11.1%)	645,000	731,000	86,000 (13.3%)
50-54세	1,116,000	1,289,000	173,000 (15.5%)	799,000	923,000	124,000 (15.5%)
전체(25-54세)	5,552,000	6,383,000	831,000 (15.0%)	3,626,000	4,240,000	614,000 (16.9%)

주: 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Statistics 등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추정방법은 본문 참조.

[그림 5]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 전망: 시나리오 미반영 및 반영 결과 비교



<표 2>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과 2065년까지 얼마나 증가할지를 연령별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5]는 식 (1)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와 일본의 경우처럼 변화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사례를 적용한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일부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42년 이후 일본의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 2042년과 2065년 추정치가 다르다. 또한, 각 연령 여성인구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증가규모는 연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의 경험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장래의 연도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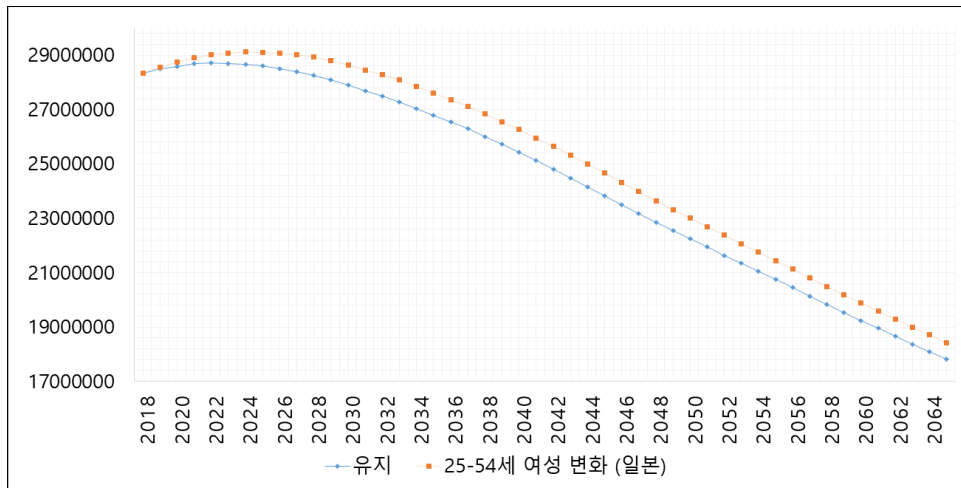
<표 2>의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35~39세의 경우 2042년을 기준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약 23%(약 161,000명)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대 후반의 경우,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약 10%(약 78,000명)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15%(약 14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기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효과는 30~34세의 경우 약 18%(약 133,000명) 증가, 45~49세의 경우 약 11%(약

135,000명) 증가, 50대 초반의 경우 약 16%(약 173,000명) 등으로 추정되었다. 25~54세 전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2042년까지 약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감소 문제에 대한 함의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여성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2042년을 비교 시점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그림 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의 역사적 사례를 따르는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



〈표 3〉 전체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대한 영향

	2042			2065		
	경찰인구	현재 대비 변화	현재대비 비율	경찰인구	현재 대비 변화	현재대비 비율
2018년 경찰률 유지	24,813,000	-3,538,000	87.5%	17,815,000	-10,536,000	62.8%
여성 경찰률 변화 (미국) (유지 시 대비)	25,610,000 (+797,000)	-2,741,000	90.3%	18,326,000 (+511,000)	-10,025,000	64.6%
여성 경찰률 변화 (일본) (유지 시 대비)	25,644,000 (+831,000)	-2,707,000	90.5%	18,429,000 (+614,000)	-9,922,000	65.0%
장년 경찰률 변화 (일본) (유지 시 대비)	25,495,000 (+682,000)	-2,856,000	89.9%	18,263,000 (+448,000)	-10,088,000	64.4%

주: 1) 유지 시 대비: 2018년 경제활동참가율 유지되는 경우와의 차이를 아래의 괄호에 삽입하였음.

2)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Statistics 등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추정방법은 본문 참조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 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해준다. 이를 수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6]은 최근(2018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중위추계 결과에 따른 인구변화가 가져올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일본의 역사적 사례를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는 가상적인 경우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3>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2042년과 2065년의 경제활동인구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가 지적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중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42년까지 현재의 약 7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 때문

에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이보다 느리게 감소하여 2042년까지 현재의 87.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15년 후인 2034년까지는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고 내다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의 추이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년(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규모 감소폭을 더욱 줄일 것이다. 이 연구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한다면 2042년까지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90.5%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부터는 청년인력의 가파른 감소가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3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현재 26%에서 2042년 약 18%로 감소하고, 특히 일부 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분석결과를 특히 35세 미만 젊은 취업자 비중이 높은 성장산업이 청년노동인력 감소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공해준다(이철희, 2019b).³⁾ 그런데 주지하듯이 나이가 든 노동인력보다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이 인적자본의 질 면에 있어서 청년인력의 감소효과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양적으로 노동인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지는 장년층의 고용을 증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서 각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의존한다. 여기서는 거칠게나마 양적인 면에서 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의 역사적인 경험을 따를 경우 향후 우리나라 경

3) 각 산업의 연령별 취업자 규모 변화를 결정하는 노동시장 동학(dynamics)의 파라미터들이 유지되는 경우 나타날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의 35세 미만 취업자 비중의 감소는 최근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임금이 높으며, 일자리의 질이 좋은 산업일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이 발견된다(이철희, 2019b).

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여성에 대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힘입어 장년고용이 빠르게 높아졌고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장년고용증진정책이 충분한 성공을 거두는 경우 우리나라의 장래를 예상하는 데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아래의 분석은 여성과 장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인 노력이 과거 일본이 얻은 것과 동일한 성과(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달성하는 가상적인 경우 각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줄 것이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는 일본의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에 따라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2042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2018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682,000명 더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42년까지 현재의 89.9%로 감소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없는 경우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87.5%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장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효과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효과(831,000명 증가, 현재의 90.5% 유지)에 비해 규모가 작다. 2065년을 비교 시점으로 보면 두 시나리오 간 격차는 약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통계청이 전망한 바에 따라 인구가 변화하고,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여성인구와 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할 때,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규모가 장년 경제활동인구 증가 규모보다 클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일본이 과거에 성취한 것과 동일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노동인력규모 증가라는 면에서는 여성노동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가 장년노동과 관련된 정책적 효과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사례만을 적용하여 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중인 장년고용증진 방안이 여러모로 일본의 과거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의 결과가 인구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이 논문의 II-2절과 II-3절에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은 상이한 경로를 통해 유사한 결과(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을 위한 복지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반면 법적·제도적·문화적인 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이 강하게 확립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공식·비공식적인 불리함은 여전히 큰 편이지만 장기요양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되면서 여성고용이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두 국가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철희. 「2000년~2014년 출산을 변화요인 분해: 출산장려정책 평가에 대한 함의. 이상협·이철희·홍석철.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이철희·이지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23권 4호 (2017. 12): 34-77.
- 이철희.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2018.
- _____. 「출생아 수 변화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5권 1호 (2019. 04): 37-91. (a)
- _____.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한 노동정책」.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19(발간예정). (b)
- 이철희·권정현·김태훈.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교육, 의료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 2019.
- Abe, Yukiko.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labor force behavior of women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5 (2011): 39 - 55.
- Bae, Hae Sun. “Determinants of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Female Employees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1 (February 2014): 513-528.
- Bailey, Martha J. “More Power to the Pill: The Impact of Contraceptive Freedom on Women's Life Cycle Labor Suppl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 (1) (February 2006): 289 - 320.
- Blau, Francine D., and Kahn, Lawrence M. “Changes in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Married Women: 1980 - 2000.” *Journal of Labor Economics* 25 (3) (July 2007):

393-438.

_____. "Female Labor Supply: Why Is the United States Falling Behin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3) (May 2013): 251-56.

Cannings, Kathleen, and Lazonick, William.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Managerial Woman" in Japan." *Industrial Relations* 33 (1) (January 1994): 44-69.

Edwards, Linda N. "The Status of Women in Japan: Has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Made a Difference?" *Journal of Asian Economics* 5 (2) (1994): 217-240.

Goldin, Claudia.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_____.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6 (2) (May 2006): 1-21.

Kang, Jean S. "Evaluat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in Japan and Korea: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3 (3) (August 2017): 294-320.

Krueger, Alan B. "Where Have All the Workers Gone? An Inquiry into the Decline of the U.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Conference Drafts* (2) (2017): 1-87.

Lee, Chulhee, Kim, Hyewon, and Oh, Seojung. "Parental Gender Norms and College Major Choice." Paper presented at the 2019 AASLE.

Nakamura, Jiro, and Ueda, Atsuko. "On the Determinants of Career Interruption by Childbirth among Married Women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3 (1999): 73-89.

Nakata, Yoshi-fumi, and Takehiro, Ryoji. "Employment and Wages of Female Japanese Workers: Past, Present, and Future." *Industrial Relations* 41 (4) (October 2002): 521-547.

Nishitaten, Shuhei, and Shikata, Masato. "Has improved daycare accessibility increased Japan's maternal employment rate? Municipal evidence from 2000 - 2010."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44 (2017): 67 - 77.

Nobutane, Hanayama, and Hwang, Myung Jin. "A Comparative Study on Female Labor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 (2) (June 2014): 91-112.

Okamura, Kazuaki, and Islam, Nizamul. “Inter-temporal Labour Force Participation among Married Women in Japan.”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62 (4) (December 2011): 562-580.

Oshio, Takashi, Usui, Emiko, and Shimizutani, Satoshi.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Japan.” Working Paper, 2018.

Raymo, James M., and Lim, So-jung. “A new look at married women’s labor force transitions in Japan.” *Social Science Research* 40 (2011): 460 - 472.

Stevenson, Betsey. “Divorce Law and Women's Labor Supply.”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5 (4) (December 2008): 853-873.

The 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he 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Work-Family Conflic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 (1) (March 2015): 169-177.

Unayama, Takashi. “Consumption Responses to the Child Allowance.” *RIETI Discussion Papers Series*, 2011.

Yamaguchi, Shintaro, Asai, Yukiko, and Kambayashi, Ryo. “Effects of subsidized childcare on mothers’ labor supply under a rationing mechanism.” *Labour Economics* 55 (2018): 1 - 17.

〈부표 1〉 장래 경제활동참가를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 설정

국가 및 연령	기준시점 (현재 한국과 가장 유사했던 연도)	역사적 정점	수렴기간	연평균 증가분
A. 미국				
25-29세	1996년	1997년 (77.32%)	1년	0.86%
30-34세	1981년	1999년 (75.89%)	18년	0.59%
35-39세	1978년	1997년 (76.63%)	19년	0.84%
40-44세	1979년	1997년 (78.89%)	18년	0.82%
45-49세	1987년	2000년 (79.12%)	13년	0.68%
50-54세	1992년	2003년 (74.71%)	11년	0.58%
B. 일본				
25-29세	2008년	2018년 (83.88%)	10년	0.74%
30-34세	2008년	2018년 (76.90%)	10년	1.17%
35-39세	1996년	2018년 (74.80%)	22년	0.64%
40-44세	1980년	2018년 (79.65%)	38년	0.41%
45-49세	1989년	2018년 (79.62%)	29년	0.32%
50-54세	2004년	2018년 (78.93%)	14년	0.76%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Statistics 등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추정방법은 본문 참조.

Projecting Future Change in the Female Labor Force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Implications for the Effects of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on the Size of the Workforce

Chulhee Lee · Claire Kyu-yeon Kim

This study estimates how changes in the female (aged 25 to 54)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following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US and Japan would alter the future trend of the fema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2065, compared to the case in which the LFPR as of 2018 will remain un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emale labor force aged 25 to 54 will increase by 14% (about 797,000) and 15% (about 831,000), respectively, by 2042 if the female LFPR should change following the past trends of the US and Japan.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labor force is expected to be pronounced among females aged 30 to 44 who currently suffer high rates of job sever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engthen the prediction that the on-going population changes will not reduce much the over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e near future. The result of a simul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Japan suggests that, as least in the near future, policy efforts to encourage female labor supply will be more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potential labor-market impacts of population changes, compared to policies aiming at increasing old-age employment.

Key words: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decline in the labor force, female economic activity